

연중 제12주일

기도서 P. 377 C해
 제1독서(자 카 12, 10-11)
 제2독서(갈 라 3, 26-29)
 복 음(루 까 9, 18-24)

숲 정이

발행인 김 환 철
 인쇄인 김 봉 희
 주간 조 성 호
 편집 장 한 상 갑

편집실 : 전주시 서노송동 560의 6
 전주교구청 내 (전화 ④2935)

□ 감 론



생의 투쟁

김 기 수 신부

성당내 아스팔트로 곱게 포장된 정구장이 있다. 이 정구장의 주변에는 포플러나무 몇 그루가 경중한 모습으로 서 있으면서 정구 애호가들에게 시원한 안식처를 제공하고 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한 그루의 나무는 유난히도 자기의 존재 양상을 부각시키고 싶어선지 뿌리를 깊게 내리면서 주위를 점령하기 시작하였다. 그로 인해 아름답고 곱게 화장한 숲처녀의 얼굴같은 정구장의 모습이 이그러지기 시작하였다. 이제 그 정구장을 보호하기 위해 그 뿌린 뿌리를 도끼로 찍어내리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런데 왜 일인가?

올 봄에 정구장에 마치 봄을 알리는듯한 새싹 봉우리가 정구장 주위에 나타나 있지 않는가?

유심히 살펴보니 생의 약동을 알리면서 그 두터운 아스팔트의 표피를 밀어제치고 자기의 존재를 뚜렷히 보이게 위해 움트고 있었다.

아!

얼마나 억척스러운 생의 투쟁인가?

이 표피를 깨지 못하면 영영 어두움 속에서 자기의 존재를 드러내지 못하고 만다는 사실에 억척스러이 서서히 그 두터운 가죽을 밀어제치고 등장한 삶!

위대한 삶의 모습이였다.

만약 이 삶들을 인간들이 본받는다면 얼마나 좋을까?

조그마한 사실이 어두움속에 있다하여 주위진 나의 자연적 삶을 쉽게 단념해 버리는 모습과 얼마나 대조적인가?

역시 생은 자연에게서 배워야 한다.

자연은 언제나 인간에게 생의 正道를 가르쳐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못 깨닫는 걸까?

시야가 좁아서일까?

아니면 나만을 생각해서일까?

넓고 깊게 살아보자.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도 깊은 배면속에서 태동하여 밀고 나가보자. 어떠한 어려움과 역경이 닥치더라도 이겨 나가 보자.

눈물도, 슬픔도 물리치고 먼 훗날 밝은 태양인 그리스도를 만날때까지 온 정력을 쏟아보자.

넘어져도 일어나고, 또 넘어지더라도 일어나자. 마지막 내 생의 약동이 끝날 때까지-

이것이 바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루까 9, 18: 마태 16, 15)라는 그리스도의 질문에 무언의 행동의 응답이 아닐런지-

<전동천주교회 보좌신부>



애국을 빙자한...

소위 「높은 자리」에 있는 것을 기화로 하여 부정한 것 거리로 돈을 긁어 모은 극소수의 사례가 발표되었다. 놀라운 일이다. 분통이 터질 일이다. 이미 바람결에 들려오는 소리(하기야 당시에 이러한 말을 크게 외쳤다면 <유언비어 날조?>로 처벌을 받지 않았을지 모르겠다)를 통해서 어렵듯이 짐작하고 있던 사실인지라, 오히려 그밖에도 또 있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마저 갖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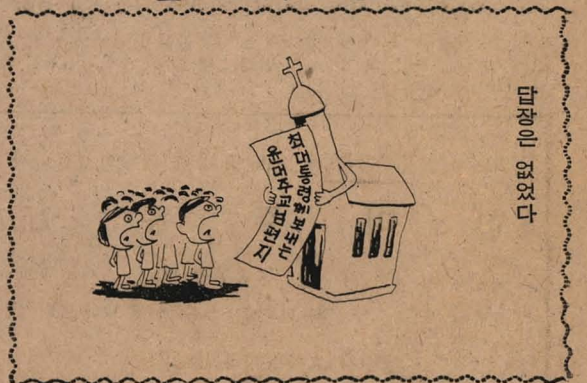
차제에 「권력형 부정축재자」에 대해서는 그 진상이 소상히 밝혀져야 한다. 혹시라도, 그 대상에서 교묘하게 빠져나가거나 감추어지는 사례가 있다면 국민들의 의혹은 더욱 확대될 것이다. 그가 누구든지간에 예외가 있어서는 안 된다.

또 하나는, 이 기회에 언론이 진정으로 사회의 목탁이 되고 파수군이 되어야 하겠다는 것이다. 그간 언론이 살아 움직일 수 있는 풍토이었다면 십수년에 걸친 그들의 억압한 음모에는 제동이 걸렸을 것이다. 우리의 눈과 귀와 입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의 부정과 비리는 눈덩이 커지듯 커지고 말았다해서 틀린 말은 아닐 것이다. 권력을 가진 자들이 언론을 봉쇄한 채 그런 일들을 저질렀으니 그토록 오랫동안 유비통신(?)처럼 들리는 소식과 서민들의 한숨에 응어리만 더욱 커졌을 것이다.

또 있다. 부정한 방법의 치부(致富)도 문제지만 부도덕한 몸놀림도 파헤쳐져야 한다. 의혹에 싸인 스캔들도 밝혀져야 한다. 아직도 「영웅호걸은 호색」이라는 절승차원의 사고방식에 젖어 있는 소위 「국민의 지도자」가 있어서는 안된다. 이런 일들은 지도자 이전에 한 가정의 아버지로서도 무자적자요, 지아버로서도 낙제생임을 드러낼 뿐이다.

애국을 빙자한 못된 자여, 잠을 깨어라!

숲 정이 산책



교회(敎會)는 정치(政治)에 어떻게 관여해야 하는가?

— 그 관계의 이상과 현실

우리들의 생활은 일상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항상 정치문제와 많은 관계를 맺고 있으며, 정치와 떨어져서는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다. 그러나 「교회는 정치에 관여해서는 안된다」는 태도가 교회 내부에 뿌리깊이 자리잡고 있다. 한편 이와는 달리 그같은 태도는 교회를 사회로부터 유리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는 정치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해야 하며 「적극적으로 정치에 관여하고 이를 체계화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주장도 있다.

□ 정교분리(正敎分離)의 참다운 의미

그리스도는 당시 유대나라의 신정정치를 강력하게 거부함으로써, 「혁명적」인 영향을 유대의 정치에 미쳤던 것이다. 그리스도가 「구주」로 불리웠던 것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스도는 오로지 하느님에 대한 인간의 신앙의 자유성을 속박하지 않기 위해 정치적 지배자의 모습을 갖는 것을 끝까지 거부했던 것이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느님의 것은 하느님에게」라는 놀라운 말씀에 의해 그리스도는 반대자의 함정을 교묘하게 회피할 수 있었다. 이 말의 중점은 「하느님의 것은 하느님에게 돌리라」고 하는 데 있다. 그리스도는 이에 의해 정치적 영역과 종교적 영역의 존재를 인정했지만, 이 두가지 영역이 서로 무관계하다고 말했던 것은 아니다. 정치도 사회도 모든 것이 하느님의 것이기 때문에 어떤 것도 복음의 정신에 합치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리고 정치도 하느님 앞에서 자기 행위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한 것이다.

물론 이 두가지 영역은 하느님의 뜻에 의해 자기 자치성을 갖고 있으며, 때문에 서로 존중하지 않으면 안된다. 정치는 종교를, 종교는 정치를 지배해서는 안된다. 즉 종교는 사회의 구체적인 건설을 정치에 맡기며, 정치는 또한 어떤 경우에도 인간에게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가진 종교를 속박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그러나 「정치적 공동체」도 「종교적 공동체」도 모두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은 아니다. 쌍방 모두가 인간에 의해 구성되고 양자가 똑같이 인류의 역사속에 있는 것이며 양자 모두가 사회의 각 분야에서 공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교분리」는 이런 각도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교회는 일찌기 이 세상에서 하늘나라를 이룩하기 위해 세워진 것이다. 지상의 정권을 손에 넣기 위해 세워진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권과 속권을 구별하며 각자의 영역에서 최고의 권능을 갖는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다.

그러나 교회도 역사속에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때(時)의 정조를 탐구하고 복음의 빛에 비추어 이를 해명하는 사명을 갖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교회는 자신만이 갖는 고유한 것, 저 총괄적인 인간관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마오로 6세 회칙 : 제 민족의 발전 추진에 대하여)

□ 교회가 정치에 관여할 때

복음을 따라 산다는 것은 다만 일반적인 진리를 강조하는 것만은 아니다. 인생관, 사회관, 국가적 국제적 생활양식, 평화의 건설 등에 대해서도 복음의 정신을 전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교회는 「그리스도교의」 인생관의 이름으로 국가방위라는 문제에 대해서도 발언하고, 국가가 수단을 가리지 않고 행동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강조할 의무와 권리를 갖고 있다. (루세주교, 프랑스 폰트완느 교구 주교)

그것은 최저한, 정치에 있어서나 국가에 있어서나 인간성이 존중되지 않을 때, 인간의 존엄이 유린당하려고 할 때, 파괴되려고 할 때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그 시점이 언제이며, 어떤 상황이나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판단하지 않으면 안된다.

□ 복음의 정신을 반영한 정치론

「인간에게 바람직하지 않은 조건이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인가, 첫째 생명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저한의 물질을 갖고 있지 못한 사람들의 물질적 결핍, 그리고 이기주의의 독에 감염된 사람들의 도덕적 결핍을 들 수 있다. 둘째 사유권이 아닌 권력의 남용, 노동자의 착취, 그리고 앞제적인 기구제도를 들 수 있다.

그러면 이와 반대로 바람직한 조건이라는 것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인가. 그것은 우선 빈곤으로부터 해방되어 생활에 필요한 것을 획득할 수 있게 되는 것, 사회악의 근절, 지식의 증대, 그리고 문화의 획득을 의미한다. 다음은 타인의 존엄에 대한 올바른 평가, 가난한 마음을 구하는 것, 공동복지 증진을 위한 협력, 평화에의 지향을 들 수 있다. 그리고 특히 듣고 싶은 것은 최고의 선이자 그 근원이시며 終極이신 하느님을 파악하는 것이다. 끝으로 그리고 무엇보다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조건은 인간의 선의에 의해 받아들여지는 하느님이 보내 주시는 선물인 신앙이며 만인의 아버지이신 살아계신 하느님에게 아들로써 받아들여지도록 우리들 모두를 부르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의 일치를 지향하는 것이다.」

교회가 국가의 정치에 직접 관여해서 안된다는 것은 분명하다. 즉 「교회는 정치를 직접 지배해서는 안되는 것」이며, 「정치도 교회를 지배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그러나 정교분리의 미명아래 교회가 발언해야 할 때, 그 의무를 태만히 해서는 결코 안된다. 정치속에 복음의 정신을 반영하도록, 살려나가도록 노력하는 것이야말로 하느님의 백성의 의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것이다.

□ 교우여러분의 가정에 소량도 신속 배달하겠습니다

한 미 주 유 소

전화 ㉠ 5669번

주최 남 수(아블로니오)

전주시 효자동 1가 283번지

三星物産 전주 특약점



McGREGOR Weekend

맥그리거 위크엔드

성인·아동용 의류

전주시 중앙동 3가 96-2 심화약국 옆

전화 ㉠ 4451 유율리안나

교회의 생명인 성령

김 운 섭 신부

오순절에 한 곳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에 가득하며, 불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보이게 나타나더니, 집안에 앉아있던 그들 모두가 뿔뿔해졌다는 것이다.

성령강림 사건은 15개 지방에서 온 유대인들에게 급격히 반영되었다. 첫째 놀라운 일ियो. 둘째 의혹에 찬 일ियो. 셋째 조롱하는 일ियो. 그들은 모두 어안이 병병하여 도대체 어찌된 영문인가? 응성거렸으며 그중에는 “저 사람들이 술에 취했군”하고 빈정거리는 사람들도 있었다. (사도행전 21:12, 13)

성령을 받은 베드로는 놀랍고, 의혹하고, 조롱하는 무리들에게 임기유변적으로 일장연설을 한다. 베드로의 일장연설의 내용은 구세주되신 나자렛 예수이다. 첫째 큰 권능을 행하신 예수(22절). 둘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33절). 셋째 부활하신 예수(24~32절). 넷째 승천하신 예수(33~34절). 다섯째 성령을 주시는 예수(33절) 결론적으로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이다. 베드로의 설교는 부활하신 예수를 증거하는 동시에 유대인들에게 메시아를 죽인 죄를 단죄하는 것이다. 「유대야 네놈들이 너희놈들이 십자가에 달아 못박아 죽인 예수야말로 참으로 죽으셨고 부활했으며 그분이야말로 참으로 우리의 주님이시고 하느님이시다.」 이 죄를 책망하는 불같은 베드로의 설교에 삼천명의 군중들은 “우리는 어찌할꼬?”라고 소리질렀다. 베드로는 권면적인 교훈으로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명하고 믿음으로 의로워지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하고 하였다.

그후 30년 오순절에 성령강림이란 인류역사상 대 획기적인 사건이었고 이로 말미암아 새 역사가 펼쳐진다. 교회란 새 역사이다. 예수와 성령 하느님의 말씀을 기본으로 한 사도들의 신앙과 복음신조를 통하여 예루살렘 교회가 창단되었다.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세계 만방으로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성령을 교회의 생명이요 성신강림은 교회의 탄일이라 한다. (진안천주교회 주임신부)

※ 본 원고는 지난 5월 25일자 강론 원고였으나, 당시 편집방침 때문에 늦었습니다.

김대전 신부님 묘소(안성 미리내)를 다녀와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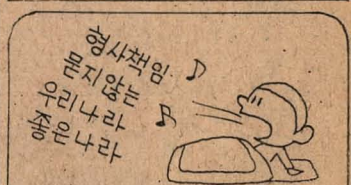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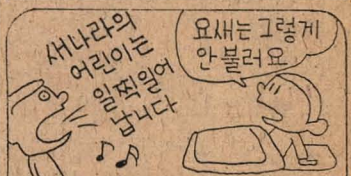
남원 천주교회 김 화 순(베로니카)

살림을 하는 주부로서 가정을 하루 떠난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애기아빠의 허락을 받아내는데 성공, 기쁜 마음으로 「성지순례」라는 예쁜 꽃 리본을 가슴에 달았다. 차창밖은 활짝 핀 꽃들이며 길어가는 푸르름이 관광경 성지순례에 나선 우리를 마음을 즐겁게 해 주었다.

절친상중 깊고도 깊은 곳에 김대전 신부님의 묘소가 있고 조그마한 경당도 있어서 미사를 드릴 수 있었다. 이렇게 깊은 산골에 김신부님의 묘소와 그분의 발자취를 더듬어 볼 수 있는 모든 것이 보존되어 있음을 교우가 된지 10여년이 흘렀지만 이제야 몸속에 깊이 느끼면서 늦게나마 이곳을 찾은 보람을 맛보았다.

역사의 즐거리만 알고 있었던 우리 일행들은 커다란 보람과 교훈을 새겨보면서 신앙심을 더욱 굳게 다지며 열심한 마음으로 살아가리라고 김대전 신부님 묘소에 고개숙여 마음을 다졌다.

어두운 고속도로를 따라 무사히 돌아오면서, 나아닌 다른 형제분들에게도 다른 옛 교적을 찾는 관광보다는 미리내를 꼭 한번 가서 보시라고 권하고 싶은 마음 간절했다.



사진자료 및 기계 칼라필름 도산대
유 광 사
주 유 가에따노(영문)
전주시 경원동 1가 104-26
(상업은행 후문 앞)
전화 ④ 4448 · ⑤ 2176

※ 전주역 앞
범모약국
전화 3-5319
김영춘(아오스딩)

건축용페인트, 기와용락카, 카-슈철, 호마이카, 락카, 접착제, 청단 안료, 왁스, 금분, 은분, 가구재료 도장공사 청부(상담)
현대 페인트사
청자표 현대페인트(주)
전주 직매점
주오영원(바오로)·김영환(아오스딩)
전동 2가69(성모병원앞) ②2377번

□ 정화 미용학원 □ 학생모집 □
윤경미장원
(신부화장 및 드레스)
이리시 창인동 구역전 앞
최윤경(유리안나)
전화: ④ 8653

교우 여러분에게는 특별히 모시겠습니다
시보당 금방
(금·은·보석·각국 시계)
주 이창수(바오로)
전주 남문 옆
전화 ④ 8188 (자 ⑤0369)

도자기, 합죽선, 화문석, 필방, 특산물 일절
※ 교우님들 자주 들려 주세요.
백제공예
주 이협수(실비아)
전화 2-3908
(전주 우체국 앞, 풍남백화점 내)

표구, 서화, 병풍, 수예, 방석, 보료
문화양행
오종원(아오스딩)
팔달로 주택은행 맞은편 ③3170
☆교우님들 자주 들려주세요

제 4 지구 각 본당 소식



1. 중·고등학생 연합회 회장단 1차 모임...6월 22일(일) 오전 10시, 가톨릭 센터에서 각 본당 학생회장, 지구장 참석 바랍니다
2. 6월 전모임...7월 6일(일)로 연기,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3. 수류 천주교회 사제관 낙성식...6월 29일(일) 오전 10시, 많은 분들의 참석을 바랍니다

(중앙)

전화 ③3651 3874

주임 신부	문정현
보좌 신부	박성범
사도 회장	김병구

1. 어린이 영세식(보레) : 27일(금) 오전 10시 30분
 2. 특별강의 : 주제-신약성서의 여성관
25일(수) 오후 7시 30분
주제-문화사적으로 본 길대건 신부
7월 2일(수) 오후 7시 30분
강사-문정현 신부
 3. 영세식 : 7월 5일(토) 오후 7시 30분
합동교리-6월 30일~7월 4일
예비신자 분은 꼭 참석해 주세요
 4. 주일학교 : 부모님들 귀여운 자녀들을 매주 토요일 3시에 교리와 미사에 꼭 좀 보내 주십시오
 5. 각 쉼 의장, 부의장, 총무 모임 : 22일(일) 오후 3시 강당
 6. 대화학회 : 매주 목요일 오후 3시 모임(성경연구)
본당내 모든 지도자·대학생들은 빠짐없이 참석바람
 7. 숭정이성당 신축기금 6월말까지 납부해 주세요
- 지난주 불헌금 : 366,700원

(노송동)

전화 ③7032

주임 신부	김정원
보좌 신부	나윤근
사도 회장	박춘근

1. 인후아파트 레지오 마리에 : 매주(목) 오후 8시 17동 104호에서 단원들의 빠짐없는 참석 바람
 2. 레지오 마리에와 성서 기도회 : 매주(목) 오후 8시
 3. 성서 강의 : 매주(월·화) 저녁 8시~9시까지
 4. 중·고 성서교육 : 매주(토) 오후 5시~6시(나진부)
 5. 본당신부님의 영명축일 : 7월 3일(성 토마스 축일)
본당신부님을 위해 많은 기도 있으시기 바랍니다
 6. 재속 청년회 월례회 : 매주일 저녁미사 후
젊은이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7. 금주의 성경읽기 : 신약의 히브리서, 야고버서 전체
 8. 교무금 납부의 날 : 다음주는 교무금 납부 날입니다
- 지난주 불헌금 : 182,191원

(덕진)

전화 ③2182

주임 신부	서석기
보좌 신부	조정호
사도 회장	양상열

1. 본당신부님 영명축일 : 6월 29일
건강을 위하여 우리 모두 기도합시다
 2. 예비자 교리 : 7월 6일부터 계속(조신부님 지도)
 3. 주일학교 어린이 많이 보내 주세요
토요일 오후 3시 교리, 4시 미사
 4. 영세사진 찾아가세요 본당 사무실로 연락
 5. 부녀회 월례회의 : 오늘 공식미사 후
다음주-진복회 월례회
 6. 학생 체육대회 즐겁게 마쳤습니다
협조해주신 분들...진복회·반석회·부녀회·JOC
박을상, 덕진사제관
- 지난주 불헌금 : 231,315원

(복자)

전화 ③5238

주임 신부	김종택
보좌 신부	범영배
사도 회장	조성호

1. 사도회 월례회 : 다음주일 공식미사 후
2. 파티마 성모상을 가정에 모십시오(3일간씩)
사무실에 신청하시면 모실 수 있습니다

3. 푸른 군단 가입신청서 속히 내주세요
 4. 어머니 성가대 꼭 참석 바람 : 화요일 10시
(장선생 지도)
 5. 축! 첫 영성체 : 15명, 22일 오늘 공식미사에
 6. 중·고생 진선 체육대회에 수고하실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지난주 불헌금 : 233,760원

(서학동)

전화 ②2276

주임 신부	김병환
사도 회장	한형수

1. 청년회 우정의 모임 : 26일(목) 저녁 8시 30분
(레크레이션 강습 및 대화)
 2. 사도회 : 다음주 공식미사 후
 3. 반상회 : 저녁 8시미사 및 반상회
24일(화)-11반, 25일(수)-12반
 4. 선봉기 기증하실 분 찾습니다
성당 내부용 선봉기-15대
 5. 다음주 전례담당
독서-① 이정민 ② 김광수, 신자들의 기도-윤성순
- 지난주 불헌금 : 142,635원 교무금 : 72,000원

(숭정이)

전화 ③7366

주임 신부	이대권
사도 회장	이광노

1. 본당신부 영명축일 : 6월 29일, 축하식-공식미사 후
2. 요안회 월례회 : 7월 6일로 연기
3. 청년회합 : 6월 21일 오후 7시 30분
4. 중·고생 미사시간 : 매주(토) 오후 8시에서 7시30분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5. 어머니 성가대 : 매주(화) 오후 2시-성가연습
6. 신축기금 내주신 분 : 중앙성당 신입액중 하봉례(2천원), 최정남(5천원)

(전동)

전화 ③3222

주임 신부	김영숙
보좌 신부	유석중
사도 회장	

1. 축! 영명축일 본당신부님 : 6월 29일
축하식-공식미사 후
신자들의 많은 기도와 협조 바랍니다
 2. 축! 영세 : 신자 일동
 3. 주일학교 자모회 : 공식미사 후
 4. 글로리아성가대 모임 : 매주 목·금요일 오후 8시 30분
장소-사제관 2층
성가에 뜻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5. 다음주 전례담당(29일)
아침미사 : 사회-박중우, 독서-① 최병래 ② 이신희
공식미사 : 사회-서정옥, 독서-① 박순기 ② 양현홍
저녁미사 : 사회-경양주, 독서-① 이진홍 ② 이승호
- 지난주 불헌금 : 378,415원

(파티마)

전화 ③0915

주임 신부	김영일
사도 회장	채수현

1. 부녀회 월례회 : 다음주 공식미사 후
 2. 영세예정자 학교 : 26일(목)
 3. 영세식 : 29일 오후 1시 30분
유아세례도 결합오니 사무실에 서류 제출하세요
 4. 오늘은 침묵의 날 : 이복과 조국을 위해 기도합시다
 5. 교황주일 : 6월 29일,
이날 헌금은 교황청에 보냅니다
- 지난주 불헌금 : 80,245원 어린이헌금 : 2,165원
교무금 : 43,000원